당신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

별자리

자료조사

# 기획의도

2023년 등록 장애인 현황은 250만이 넘는다. 250만 65세 이상의 비율은 140만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 은퇴하지 않은 65세 미만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당장 필요하거나 미래에 필요한 사람들이다.1) 이 중 장애인 고용률은 33%를 조금 넘으며 67%의 사람들이 구직 대상자이다. 2) 장애인을 위한 구인구직 플랫폼이 모바일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3)현재 아르바이트 전용 구인구직 대표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과 종합 구인구직 대표 플랫폼 사람인, 잡코리아를 보면 장애인이 대상인 채용 공고는 없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인 장애인잡, WorkTOGETHER에서는 장애정도를 두단계로 일축하거나 비친화적인 UI로 구직자에게 딱 맞는 구인정보를 추천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장애인은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행동 한 번에 기회비용이 더 큰 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상태와 맞지 않는 일자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곤욕을 치를 수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불편함을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애정도를 더 세분화하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 독창적 특성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와 연봉 근무환경이 기입된 근로계약서를 ‘별자리’에서 제작하고, 미리 구직자에게 작성 받은 서명을 기입해주면서 손으로 서명하기 힘들 수 있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기업이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예방하고 보호합니다.

직관적이고 세세한 검색 기능을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신체 조건에 부합하는 구인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 양손의 운동가능 정도, 서있을 수 있는 시간 등을 검색 조건에 넣어 자세한 검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존 구인구직 서비스에는 없는 기능으로, TTS기능을 제공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구인정보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활용방안 기대효과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독립을 하고 하나의 객체로서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 때 직업을 갖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인구직 서비스는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불친절하며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인 서비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행동 한 번에 기회비용이 더 큰 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상태와 맞지 않는 일자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곤욕을 치를 수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때문에 저희 파수꾼은 기존 서비스에서 크게 개선된 ‘별자리’로 장애인 구직자들이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에 많은 기업과 접촉하여 일자리를 갖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별자리’가 장애인 구직자를 도와 하나 둘 취업을 하게 되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장애인의 인식은 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회에서 나와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식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일련의 사고로 자신이 장애인이 된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 파수꾼이 만든 ‘별자리’가 시작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독립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인구직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매우 불친절하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행동 하나에도 더 큰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와 맞지 않는 일자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파수꾼은 '별자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자리'는 장애인 구직자들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많은 기업과 접촉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별자리'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들이 하나 둘 취업하게 되면,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회에서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저희 파수꾼이 만든 '별자리'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기술

1. Front-end

- : 주 도구 React + Typescript - API / : 상태 관리 Recoiljs, Axios - : 빌드 create-react-app - : 스타일 Material-UI

2. Back-end

- : 주 도구 Spring Boot - DB, ORM : MySQL, Spring Data JPA + QueryDSL - : J 테스트 Unit, mockito, assertj, spring-test - : 배포 Github Webhook, Gradle, Docker, Jenkins

#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가?

장애인 잡이란 서비스 존재 <https://www.ablejob.co.kr/> 알바몬이 아닌 사람인 형태임

기업에서 구직 요청을 받음, 장애 정도로 직원을 구할 때 무관,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3단계로만 구성되어있음. Api는 훨씬 자세함. 차별점이 될 듯

# API

Job\_list\_env에 장애정도 요구하는 능력 자세히 적혀있음. 이걸로 차별점 만들기

연번,구인신청일,모집기간,사업장명,모집직종,고용형태,임금형태,임금,요구경력,요구학력,사업장 주소,기업형태,담당기관,등록일,연락처

# 구현

1. 회원관리(구직자, 기업, 스태프, 어드민)
2. 등록{채용정보 등록(api,기업등록), 구직자 정보 등록}
3. 회사지원(지원서 작성, 전송, 승낙)
4. 계약
   1. 정규직일시 회사와 직접 계약
   2. 계약직일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이거 구현)
      1.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api로 받은 임금형태, 임금 내역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해서 전송 유저에게 사인받아 저장, uuid사용하고 읽기 전용 파일로 저장
5. 탈락
   1. 탈락시 알람 전송
   2. 응원의 메시지와 함꼐 전송
6. 검색(회사명, 지역, 고용형태, 장애정도, 임금형태, 임금, 요구 경력, 요구 학력, 직무)
   1. 직무는 api가 아닌 하나하나 분류를 사람이 해줘야 함 추가 사항, GPT 도 고려사항 이게 베스트 근데 일이 너무 많아짐
   2. 키워드 검색: 일이 적당히 있음 근데 문제가 완벽히 사라지지 않음
7. TTS: 시각장애인이 구인을 클릭 시 모집 관련 정보를 읽어줌 ttsmp3.com에서 mp3다운받아 사용 메크로를 만들 듯—파이썬이 더 좋아보임 자바는 크롤링시 정지상태임

# 출처

장애인 등록 현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120&act=view>

장애인 고용률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98>

장애인 구직 사이트

<https://www.worktogether.or.kr/main.do>

<https://www.ablejob.co.kr/>

<https://jobable.or.kr/site/main/jobinfo/postForm?jobId=428>

공공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117692/openapi.do>